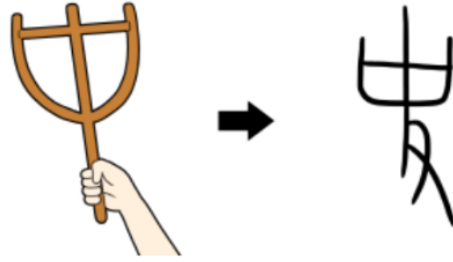


5(2)  
-  
41

상형문자 ①



史자는 '역사'나 '사관'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史자는 口(입 구)자가 부수로 지정되어는 있지만 '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또 史자를 中(가운데 중)자와 又(또 우)자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史자는 본래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관을 뜻했던 글자였다. 사관들은 제를 지내거나 점을 칠 때 사용하던 주술 도구를 지니고 다녔는데, 史자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후에 사관이 임금의 언행이나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지금은 '역사'나 '사관'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史자는 이외에도 다양한 글자로 파생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使(부릴 사)자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史

사기(史記)  
사

史

갑골문

史

금문

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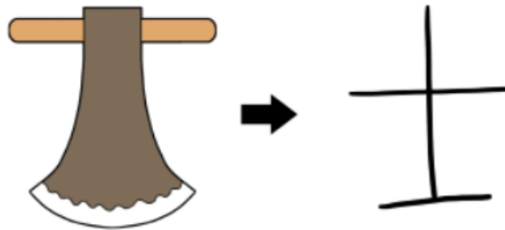
소전

史

해서

5(2)  
-  
42

상형문자 ①



士자는 '선비'나 '관리', '사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士자는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고대 무기의 일종을 그린 것이다. 士자는 BC 2,000년경인 오제(五帝)시대에는 감옥을 지키는 형관을 뜻했고, 금문에서는 형관들이 지니고 다니던 큰 도끼를 말했다. 그러니 士자는 본래 휴대가 간편한 고대 무기를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학문을 닦는 사람을 '선비'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무관(武官)을 뜻했던 것이다. 士자에 아직도 '관리'나 '군사', '사내'와 같은 뜻이 남아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士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선비'나 '관리', '남자'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士

선비 사

士

갑골문

士

금문

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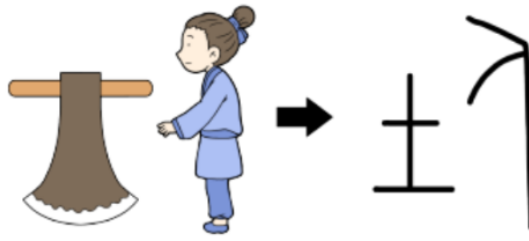
소전

士

해서

5(2)  
-  
43

회의문자 ①



仕

섬길 사

仕자는 '섬기다'나 '벼슬'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仕자는 人(사람 인)자와 士(선비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士자는 고대에 형관(刑官)들이 차고 다니던 무기를 그린 것으로 '선비'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고대사회에서 '선비'는 학식과 무예를 겸비하고 있던 사람을 일컫던 말이었다. 仕자는 이렇게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하는 士자에 人자를 더한 것으로 임금을 모시던 관리를 뜻한다.

仕

금문

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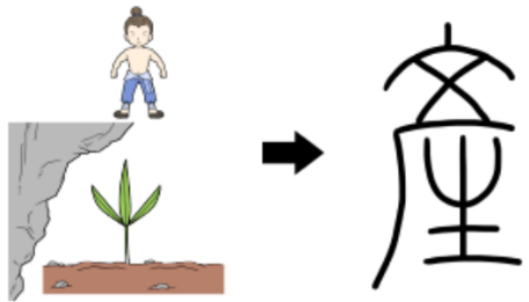
소전

仕

해서

5(2)  
-  
44

회의문자 ①



産

낳을 산

産자는 '낳다'나 '생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産자는 文(글월 문)자와 厂(기슭 엄)자, 生(날 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産자는 집에서 아이를 출산했음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厂자는 '기슭'이 아닌 '집'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또 文자는 가슴에 문신을 한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아이'를 의미한다. 그러니 産자는 '집(厂)에서 아이(文)를 낳았다(生)'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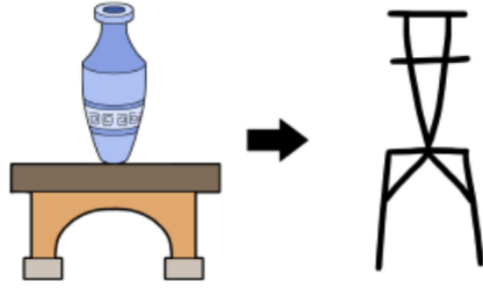
소전

産

해서

5(2)  
-  
45

회의문자 ①



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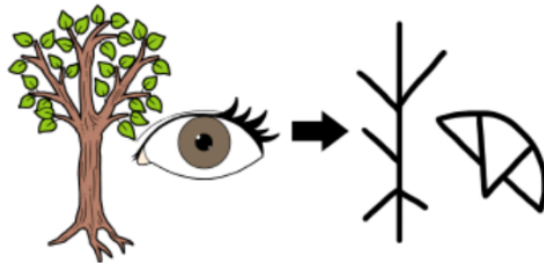
장사 상

商자는 '장사'나 '상나라'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商자의 갑골문을 보면 선반 위에 기다란 항아리가 𠂔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이렇게 좌판 위에 물건을 올려놓은 모습에 口자를 더해 𠂔 물건을 팔기 위해 지르는 소리까지 표현하였다. 고대 중국의 은(殷)나라 사람들은 장사 수완이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은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상(商)나라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商자는 '장사'라는 뜻 외에도 '상나라'를 뜻하기도 한다.

𠂔	𠂔	𠂔	商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5(2)  
-  
46

회의문자 ①



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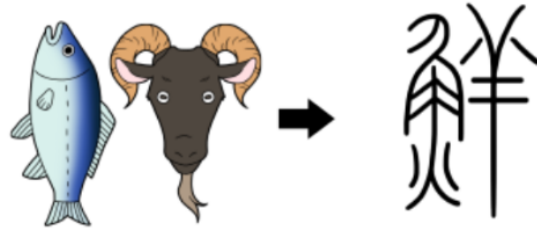
서로 상

相자는 '서로'나 '모양', '가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相자는 木(나무 목)자와 目(눈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相자는 마치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相자의 본래 의미도 '자세히 보다'나 '관찰하다'였다. 相자는 나에게 필요한 목재인지를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자세히 보다'를 뜻했었지만, 후에 나무와 눈의 대치 관계에서 착안해 '서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𠂔	𠂔	相	相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5(2)  
-  
47



鮮

고을 선

鮮자는 '곱다'나 '선명하다', '싱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鮮자는 魚(물고기 어)자와 羊(양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鮮자는 羊자가 아닌 羴(누린내 전)자가 쓰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鮮자에 대해 "선(鮮)이란 물고기 이름인데 맥(貉)국에서 나온다. 어(魚)와 전(羴)은 모두 의미 부분이며 발음 부분은 생략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羴자가 '냄새'를 뜻하고 魚자가 '생선'과 관련된 글자임을 전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鮮자는 본래 '물고기'의 한 종류를 뜻하다가 후에 '신선한 생선' 즉 '살아있는 생선'을 뜻하게 되었고 이것이 다시 확대되어 '깨끗하다', '선명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

鮮

금문

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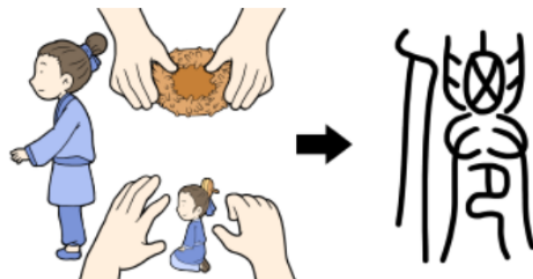
소전

鮮

해서

회의문자 ①

5(2)  
-  
48



仙

신선 선

仙자는 '신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仙자는 人(사람 인)자와 山(뫼 산)자가 결합한 것이니 '신선'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人자와 𡵓(오를 천)자가 결합한 僊(신선 선)자가 '신선'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𡵓자는 새집을 옮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人자가 더해진 僊자는 '산으로 터전을 옮긴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글자가 간략화되면서 山자가 들어간 仙자가 '신선'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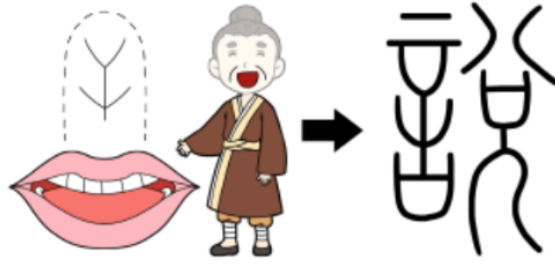
소전

仙

해서

5(2)  
-  
49

회의문자 ①



說

말씀 설  
달랠 세

說자는 '말씀'이나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說자는 '말'과 관련된 여러 글자 중에서도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가장 두드러져 있다. 說자의 구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說자는 言자와 兌(기쁠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兌자는 입을 벌려 웃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입을 벌린 모습을 그린 兌자에 言자가 결합한 說자는 누군가에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說자는 주로 '이야기하다'나 '서술하다', '유세하다'와 같이 입을 벌려 크게 말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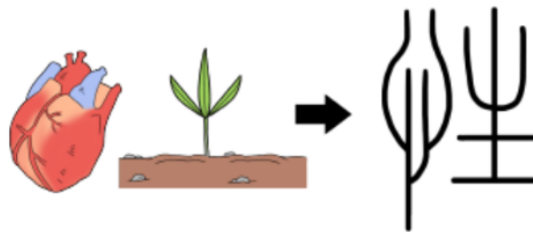
소전

說

해서

5(2)  
-  
50

회의문자 ①



性

성품 성

性자는 '성품'이나 '성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性자는 心(마음 심)자와 生(날 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生자는 초목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글자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生자와 心자를 결합한 性자는 '타고난(生) 심성(心)'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타고난 천성이 있다. 어떤 아이는 말수가 적고 얌전하지만 어떤 아이는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꼭 이런 비유가 아니더라도 性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성을 뜻한다. 워낙 원초적인 것을 뜻하다 보니 때로는 이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性

소전

性

해서